

전주동물원 동물치유센터 개소

사업비 7억 5,000만원 투입 진료에 필요한 8개 주요시설·10여종 필수 의료장비 갖춰

생태동물원으로 변화중인 전주동물원에 최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동물병원인 신축돼 동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동물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동물병원인 동물치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동물치유센터 신축은 호랑이·사자사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민선6기 전주시 핵심사업인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동물치유센터는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103종 605마리의 동물들에 대한 진료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전주동물원 관리사무실 옆 부지에 330㎡ 규모로 신축됐다. 이곳은 수술실과 약제실, 진료실, 엑스레이실, 입원실, 실험실 등 동물 진료에 필요한 8개 주요시설은 물론, 초음파진단기와 이동형디지털엑스레이시스템, 유전자 증폭 분석기, 혈액 가스분석기, 자동혈압측정기 등 등 10여종의 필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한 질병 조기진단이 가능해지고 진료의 정확성도 높아져 동물 치료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역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 발생 시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동물원은 새로 신축된 동물치유센터를 단순한 질병 치료 위주에서 벗어나 질병예방과 동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과 이경신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 송정훈 위원, 이병도 의원, 이안구 의원, 허승복 위원 등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 생태동물원 다올미당 위원, 동물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동물병원인 동물치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를 위해 동물원은 동물 각 개체별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감옥형 창살과 낡고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에서 동물들이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리던 전주동물원을 동물들의 본래 서식환경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행복한 동물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새로운 호랑이·사자사의 경우 기존 보다 2배 이상 확장된 공간에 동물들이 놀고 활동할 수 있는 물웅덩이와 놀이기구, 생태적 특성을

배려한 수목 등이 설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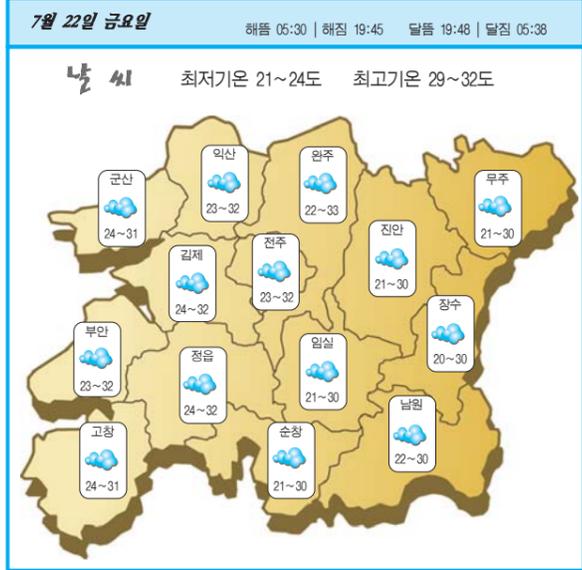
특히 전주동물원은 호랑이·사자사 환경개선이 이뤄진 후인 지난달 28일 국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시베리아호랑이 수호(10살, 암)와 호강(13살, 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 경사를 맞기도 했다.

시는 호랑이·사자사 환경개선과 이번 동물치유센터 신축에 이어, 최창살과 시멘트 바다 등 전주동물원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기존의 슬픈 동물원을 상징해온 공사를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공사는 기존보다 면적이 10배 이상

확장될 예정이며,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총 21억원이 투입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동물치유센터는 동물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면서 "동물원은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생태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자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민들과 함께 꿈을 꾸고, 꿈을 담는 기쁨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산학협력단-성원메디칼 특허권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박종관 교수 '흡인기 튜브 인도용 바늘' 실용화

전북대학교 박종관 교수(사진·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가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는 '흡인기 튜브 인도용 바늘'이 의료기기 전문 기업에 기술이전돼 실제 실용화된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성원메디칼과 최근 이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체액과 혈액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의료용 저압지속흡인기 튜브를 수술 부위에 위치시킬 때 사용되는 바늘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바늘이 조직을 관통할 때 기존 바늘이 쉽게 풀아가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손상이나 수술 의사의 손가락



손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 체결은 단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가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고안되고, 이에 대한 실용화와 제품 및 디자인의 최적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기적인 자문활동을 펼치는 등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이 기술은 많은 병원의 수술 의사와 교수로부터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일주일 만에 전국 6곳의 대형 병원에서 납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및 수술 병원에 납품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MD&M, 유럽 Medtech 전시에도 참가해 해외 수출 판로도 개척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축구경기 관람 편리하게

전주사, 송천동·아중리 2개 노선 추가 신설

전주시가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늘릴 예정이어서 내년 5월 개막하는 2017 FIFA U-20월드컵과 K-리그 전북현대 홈 경기 관람이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2017 FIFA U-20 월드컵의 개막전을 비롯한 9경기가 전주에서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월드컵경기장 노선 확충과 원활한 교통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해 하반기 시내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는 기존노선 외에도 추가로 2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노선은 송천동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연결되는 101번 노선과 아중리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연결되는 102번 노선이다.

이들 신설노선이 운행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축구경기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전주시내버스 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K-리그 2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전북현대 FC의 주말 축구경기를 보러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노선 1994번 운영으로 질 높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4번 특별노선은 지난 3월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14대의 임시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까지 아중리, 송천동, 평화동 방면에서 운행된다.

1994번 특별노선 운행 홍보를 위해 경기장 입장객들에게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방면별 탑승장소 혼선을 막기 위해 방면안내 입간판을 배치했다. 또, 경기 전 입장객 승수 후 대

기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로수교통봉사대와 자원봉사자들도 월드컵경기장 주변 교통 및 주차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봉사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전주 시내버스업체와의 협력,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1994번 운행 등을 통해 2017 FIFA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인문학 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캠프를 운영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인문학 캠프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인문적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캠프에는 작가 4명이 초청되며, 고교생 160여명이 참여한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주축이 된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선정 도서를 읽고 독서캠프에 참여하며 저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프에는 공감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독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을 배제하는 협력형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딧골,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로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년 8월 22일 - 8월 30일)